

# “힐러리? 트럼프? 둘 다 싫다네!”

### 누리꾼 231명 美 대선 여론 35% “3당 후보 뽑을 수도” 주요 정당 후보 비호감 높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이 민주와 공화 양당의 후보 대선 제3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 ABC뉴스가 여론조사기관 SRS와 함께 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35%는 제3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제3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양당 후보 가운데 자신이 더 싫어하는 주자의 당선에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걱정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였다.

게리 존슨(자유당)과 질 스타인(녹색당) 등 제3 후보에 더해 대선후보는 아니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버니 샌더스(민주당·버

### ■美 거대 정당 대항마 “바로 나”



게리 존슨

질 스타인

몬트)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당·텍사스) 상원의원을 찍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네티즌 231명을 상대로 18~19일 이뤄졌으며 오차 범위는 ±8.1%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의 조사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에 대한 반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는 공화당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절대 뽑지 않겠다는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자유당의 존슨과 녹색당의 스타인에게 표를 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비율은 각각 32%, 23%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의 지지자들 가운데에도 28%가 자유당의 존슨을 찍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클린턴 지지자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녹색당의 스타인에게 투표할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스타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트럼프 지지자는 14%로 나타났다. 올해 대선은 과거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제3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모닝컨설트의 다른 조사에서 존슨과 스타인은 각각 8%와 4%의 지지율을 얻었다. 4차 대결에서 클린턴은 39%의 지지율로 트럼프(36%)를 3%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양자 대결에선 클린턴(44%)과 트럼프(38%)의 지지율 차이는 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2번에 걸친 모닝컨설트의 조사는 2001명을 상대로 지난 16~17일, 18~20일 이뤄졌다.

한편 트럼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소폭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이 신문에서 서던캘리포니아대(USC)와 함께 32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트럼프와 클린턴이 각각 45%, 43%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는 지난날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클린턴에 앞섰다는 트럼프가 캠프를 전혀 개편하고, 과거 발언에 대해 후회를 내비치는 등 변화를 모색해온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클린턴이라는 응답이 54.3%로, 트럼프(39.9%)를 여전히 크게 앞섰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49 축한 2대 황제 유선

유선(劉璇, 207~271)은 축한(後趙)의 2대 황제로 통상 후주(後主)로 불린다. 아버지 유비는 달리 우매하고 우유부단해 위나라에 나라를 잃었다. 삼국시대 대표적인 혼군(昏君)으로 꼽힌다.

그는 유비와 감부인의 적장자로 태어났다. 어릴적 이름은 아두이며 자는 공사다. 황위에 오르기 전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소설 삼국지 연의에 단기구아두(單騎救阿父) 장면이 나온다. 조조가 장안에서 조조군을 몰리쳐 감부인과 유선을 구하는 장면이다. 유비는 아이 하나 때문에 소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고 한탄했다. 이에 감응한 조조는 평생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

219년 그는 태자가 되었다. 유비는 “태자는 삼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한가지 일을 실행하여 세가지 선을 모

갈람은 그 유명한 출사표(出師表)를 남겼다. 그는 유선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폐하께서도 몸소 마음을 써서 신하들에게 옳은 길을 보이고 바른 말을 살펴 받아들여 선제의 유언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234년 제갈량이 오장원 진중에서 사망했다. 유선은 장원을 상서령으로 삼아 국정을 총괄케 했다. 이후 장원은 대장군, 대사마가 되어 비위, 강유와 함께 총직히 후주를 보좌했다. 이후 258년까지 축한은 제갈량이 구축해 놓은 체제 덕에 정권을 이어갔다. 258년 태평성세에 나타난다는 상서로운 별인 경성(景星)이 출현해 대사마를 실시하고 연호를 바꾸었다. 환관 황호가 전면에 나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때부터 축의 운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장안, 비위가 죽은 후 대장군 강유가 군권을 장악했는데 위나라와 거듭된 싸움으로 국력을 소진시켰

### 환관에 미혹된 어리석은 군주

두 언도록 하라.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각고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릉대전에서 대패한 유비는 백제 성에서 죽었다. 임종 직전 제갈량을 불러 “당신의 재능은 조비의 열배다. 만약 유선이 보좌할만 하면 이를 보좌하고, 만약 재능이 없으면 당신이 대신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공의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제갈량은 맹세했다. 그의 치세는 234년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죽을때까지와 그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승상 제갈량은 내치와 외치 모든 것을 아우른 거목이었다. 먼저 이릉대전으로 약화된 오나라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사신 등지를 보내 군사 동맹을 회복시켰다. 주적인 위나라를 멸하기 위해서는 오나라와의 화평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전략적 요충지인 한중 지역의 경영에 힘을 쏟아 북벌의 전진기지로 만들었다. 배후지역인 남만 지방을 친정해 물자와 군사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때 참모 마축은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건의를 하였다.

유비의 북벌은 성공하지 못했다. 축은 위가 가지고 있는 영토와 인구의 1/5에 불과했다. 중원을 장악한 위에는 사마의, 장합, 등에, 총화 등 인재가 즐비했다. 227년 첫 번째 북벌에 나선 제

249년 옹주 공격, 250년 서평 출격, 254년 농산 출격, 255년 적도 공격 등으로 병력과 물자의 손실이 컸다.

262년 강유는 후화로 출격했으나 위의 장군 등에게 패했다. 위의 국력이 피폐해졌다고 판단해 대륙 정벌전을 일으켰다. 등에, 총화, 제갈상 등에게 명령해 동시에 축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축은 장익, 요화, 동근 등을 보내 이를 막도록 하였으나 실패했다. 유선은 광복대부 조주의 계책을 받아들여 항복했다. 축한은 2대 만에 멸망했다. 그는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는 인수를 당신에게 바치고 당신의 명령을 청하며 저희의 충성스런 마음을 공손히 바칩니다. 저희의 생존과 멸망, 적명과 상을 내리는 것은 모두 당신의 재량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투항했다.

그는 낙양으로 이주해 안락궁으로 봉해졌다. 식읍 만호, 비단 만필, 노비 백명을 하사받았고 자식 중 제명이 도위로 임명되었다. 271년 낙양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국지 저자 진수는 “유선은 현명한 승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는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지만, 환관에 미혹되었을 때는 어리석은 군주였다”고 혹평하였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 EU 주요국들 브렉시트 여파 대응 회동

###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 EU 개혁·난민 문제 논의



이탈리아 벤토테네 섬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영국이 빠진 유럽연합(EU)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 벤토테네 섬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다음 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정상회의의 사전 모임 성격인 이 자리에서 빅3 정상들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투표 이후 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한 외교 관계자는 이 회동에 대해 “특정할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가장 큰 세 나라의 통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요 목적은 브렉시트 이후를 계획하는 브라티슬라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다.

지난 6월 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국 정상들은 EU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올랑드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유감을 표하며 EU가 전진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렌치 총리는 지난달, 브렉시트 투

표 결과는 유럽의 정치적 패배를 상징하며 EU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명종이라고 지적했고 메르켈 총리도 유럽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렌치 총리가 이번 회동 장소로 택한 벤토테네 섬은 2차 대전 당시 무솔리니 정권에 맞섰던 정치범 수용소 역할을 했던 곳으로, 유럽 통합 운동의 산파가 된 장소여서 상징성을 더한다.

이곳에 수감돼 있던 이탈리아 정치인 에르네스토 로시와 알티에로 스피넬리는 1941년 공동 집필한 벤토테네 선언에서 회원국들이 공동 체권을 발행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유럽 차원의 공동체 창설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난민문제와 EU 재정 투자 문제 등 이들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잠재돼 있던 갈등도 전면에 드러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 인니 여객선 침몰...10명 사망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빈탄 섬 인근에서 21일 오전 현지 관광객을 태운 선박이 악천후에 전복돼 승객 17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빈탄 섬에서 6km 떨어진 인기 관광지 프빙앗 섬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이 수습한 희생자들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싱가포르 총리, 연설 중 ‘휘청’...20분 만에 회복

리셴룽(李顯龍·64·사진) 싱가포르 총리가 21일(이하 현지시간) 현지중 증세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동안 3개 언어로 국경절(독립기념일) 연설을 마쳐 갈채를 받았다. 리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기술교육원(ITE)에서 51주년 국경절 기념 생방송 연설을 했다.

리 총리는 연단에서 내려오고, 행사는 9시20분께 일시 중단됐다. 이후 리 총리는 20분 만에 행사장에 밝은 얼굴로 돌아와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차기 총선 직후에는 나의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총리 자리를 물려줄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해남관리지역 (낮은 야산) 급매**

문내면 석교리 5300P

P당 2만5천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향후 태양광-귀농을 위한 최고의 토지임

태양광 발,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창고 일반공장 퇴비공장 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자본 없이도 재테크 가능!!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없이도 공정을 소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6. 7. 18(월) ~ 2016. 9. 9(금)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마진 18:00~21:00

수강료 : 18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접수문의 : 062)230-7700~2 지도교수 : 송왕욱 010-9416-1200

**公國 2016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3기)	광주교육대학교(14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 2016. 9. 21(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 2016. 9. 3(토) 09:10 (특급반)	- 월요일 오전반 : 2016. 9. 5(월) 09:10 (초급반) - 월요일 오후반 : 2016. 9. 5(월) 14:10 (고급반) - 목요일 오전반 : 2016. 9. 1(목)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 2016. 9. 3(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6. 8. 1(월) ~ 9. 3(토)	2016. 8. 1(월) ~ 9. 3(토)
수업기간	2016. 9. 2(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6. 9. 5(월) ~ 2017. 2. 11(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학원 학원장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병과 후 교육 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 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학원 학원장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 급학교 병과 후 교육 교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봉교) : 010-3614-4160	- 문 의 : 062)520-4243 - 지도교수(선봉교) :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독자와 함께 있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북구	광주시내(062)	전남(061)·전북(063)
동광 264-2012 문흥 266-1960 북광주 266-5530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봉 512-8116 중흥 654-2985 남광 222-944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1896 충정 222-8171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중앙 603-0311 화정 369-0583 월곡 941-9174 천안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고흥군 842-2121 곡성군 362-8111 구례군 782-4696 광양시 792-8111 영성군 852-9646 순천시 746-8111 여수시 692-0997 나주시 335-5501 강진군 434-6830 담양군 383-8116 영암군 471-1717 장성군 394-0400 장흥군 863-8822 화순군 374-4423 목포시 276-9200 무안군 452-8535 신안군 278-8111 영광군 351-1004 완도군 654-6677 진도군 543-0100 함평군 324-8111 해남군 537-6767 군산시 467-2500 정읍시 531-5544 순창군 652-1920 남원시 626-1601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